



요약

사설

지금은 기쁨과 평화의 때입니다.

양성 여정

축복의 포옹.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ANGEL FERNANDEZ ARTIME 신부님의 편지.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4. 신심회원의 의무는...

가족의 연대기

- 시실리아의 아드마.
- 산 베니그노 카나베세.

사설

P.1

지금은 기쁨과 평화의 때입니다

사랑하는 아드마 회원 여러분,

P.2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희망을 기원하며, 성모님께 봉헌된 5월을 시작하는 첫날에, ADMA 창립 기념일인 2023년 4월 18일 축하하기 위하여, 신자들의 도움이라는 사랑스런 이름으로 축제를 거행하게 될 것입니다.

P.5

이 세 가지 기념 사이에는 매우 강한 연결점이 있는데, 전례력으로 올해 2023년과 같이 ADMA의 창립 일자가 우리 주님의 부활절과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 사이에 올 때 더 강조됩니다. 마치 우리의 정체성이 부활하신 두 기둥, 예수와 마리아라는 두 기둥을 정확하게 내포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P.6

P.8

그리스도인으로서, 돈 보스코의 자녀로서, ADMA 회원으로서, 우리의 기쁨은 이 시기에 경험하고 있는 부활에서 자양분을 얻고 뿌리를 내립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거대한 비밀”**(Chesterton)임은 정말 사실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무엇도 상처낼 수 없는 충만하고 심오한 기쁨입니다. 예언자는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 백성아, 내가 이렇게 너희 무덤을 열고, 그 무덤에서 너희를 끌어올리면, 그제야 너희는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 주어 너희를 살린 다음, 너희 땅으로 데려다 놓겠다.

그제야 너희는,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이다.”(에제 37:12-14)



동시에, 정확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유지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너그러운 마음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습니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느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필리피4,4-7).

따라서 한편으로 우리는 부활을 통해 양육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마리아에게서 “기쁨의 자세”를 배우며 주님을

찬미하기 위해 마리아를 바라봅니다. 마리아 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큰일을 하셨다”(루카 1,49)는 것을 재발견합니다.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마리아와 함께 우리는 슬픔과 낙담을 피하고, 삶의 여러 사건들, 심지어 어려움까지도 우리 마음 속에 간직하고, 신뢰하며 희망합니다. 끝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그분의 중재로 우리의 간청과 간구를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이 세대에 세상에 평화가 돌아오도록, 주님께서 전쟁의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청하며, 끊임없이 기도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 인류와 민족들의 어머니시여, “그들의 모든 고통과 희망을 아시는” 선과 악, 빛과 어둠 사이의 모든 투쟁을 어머니로서 받아들이시니, 오늘 이 세상을 향한 저희의 외침을 들어주소서. 성령의 감도에 따라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이며, 사랑의 어머니시며 하느님의 여종이신 당신 성심께 전구를 청합니다. 우리 인간 세상의 사람들과 민족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국가들을 당신께 맡기며 봉헌합니다. “당신이 저희의 피난처가 되시어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 어려움 속에 있는 저희의 간청을 외면하지 마소서!” (요한 바오로 2세 봉헌기도 - 파티마1982년 5월 13일).

아드마 프리마리아 회장, 레나토 발레라
아드마 프리마리아 영적활성자, 알렉산드로 구에바라

양성 여정

축복의 포용

“매일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같은 선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나약함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하느님의 자비

“자비는 하느님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자비는 하느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 가라앉아버리도록 단죄받지는 않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자비의 해를 맞이하여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자비에 대해 말씀하셨지만(루카 15,11-32),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아버지의 자비이며, 마리아는 자비의 문입니다. 마리아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죄의

상처와 연약한 우리 죄인 각자에게 죄와 상처와 연약함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입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완전히 공짜입니다. 부드러움, 관대함, 무조건적인 사랑이 넘치는 원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거나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유롭게 무상으로 받습니다.

라틴어에서 “**misericordia**” 라는 용어는 “**miseria**” 와 “**cuore**” 라는 두 단어로 구성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을 만나러 오는 것은 하느님의 마음입니다. 악은 죄의 상처와 우리 안에 있는 슬픔과 실망을 먹고 살며, 이 모든 상처에 하느님의 자비가 찾아옵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받아들여줍니다. 자비로우신 성부의 포용입니다.

렘브란트의 유명한 그림은 우리에게 이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콧수염과 두 갈래로 갈라진 턱수염을 기른 반맹인 노인으로 묘사되며, 금으로 수놓은 긴 튜닉과 짙은 붉은색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하나이고 아들은 그와 하나입니다.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의지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받쳐줍니다. 감은 눈으로 아버지는 모든 캐릭터를 비취줍니다. 뻗은 팔과 끌어안는 손으로 그의 사랑으로 모든 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합니다. 그의 들어눕히는 생명력으로 굶어 죽어가는 이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모든 것이 그에게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그에게 모아집니다.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은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비춥니다. 이 빛은 빛과 온기의 근원인 그의 손에서 살아 빛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몸, 특히 심장의 자리인 가슴에 빛이 들어옵니다. 모든 악을 불사르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불의 손입니다. 만지고 치유하며 희망과 믿음, 위로를 주는 손입니다. 왼손은



강하고 근육질입니다. 남성의 잡고 붙들어 주는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깨에 부드럽게 얹혀 있는 오른손은 섬세하고 부드러우며 매우 부드럽습니다. 이 손은 밟지 않고 어루만지고 보호하며 위로하고 진정시키는 어머니의 손입니다. 하나의 사랑을 위한 두 개의 다른 손은 부성애와 모성애입니다. 아버지에 관한 모든 것이 사랑을 말해줍니다. 열중하는 얼굴, 보호하는 옷, 환영하는 몸, 포용하고 축복하는 손. 아버지의 몸은 환영하는 자궁이 되고, 그의 손은 다시 찾은 아들을 어루만집니다. 그의 사랑은 수용, 용서, 울음, 부드러움, 선물, 나눔, 축복, 소망, 기쁨, 축하, 생명, 상속입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

자비가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탕자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과 자비로운 포용에 우리를 열어주는 조건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신뢰 2) 겸손 3) 감사 4) 형제자매에 대한 용서

1) 신뢰

하느님의 자비는 우리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신비요 가장 아름다운 보물임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 그것을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항상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때때로 우리는 주님의 용서에 대해 믿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기 예수의 데레사는 하느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신뢰 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자비가 주어질 것이며, 우리는 하느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겸손과 영혼의 가난

우리가 자비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만, 나는 실수를 저질렀고, 나는 나에게 결점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자신을 구하고 선행과 자질을 바탕으로 부유해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과 타인을 위한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은 형의 태도(“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이며 이것이 비유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사이인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은 정의감에 만족하고 자신의 일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축복이 죄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불의로 여깁니다.

이것은 인간의 자존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가난한 자와 죄인에게 관대하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가난하고 죄인인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습니다.

3) 감사하라

세 번째 중요한 조건은 감사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 13,12).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선물받았음을 알고 감사하는 사람은 더 받을 것입니다.

영적인 삶에는 마음으로 감사하면 할수록 하느님께서는 더 많이 주신다는 작은 비밀이 있습니다. 삶이 완벽하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없을 때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열려지고 그분의 자비를 기꺼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4) 용서

하느님의 자비를 받기 위한 네 번째 조건은 복음서에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느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때때로 사람이 하느님의 자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자비의 부족, 마음의 완고함, 다른 사람에 대한 선의의 부족입니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내가 형제자매들에게 자비를 베풀수록 하느님은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향해야 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진정으로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려면 아버지의 마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의 기초입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마음이며, 내가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 곳입니다.

화해의 성사 그리고 반복되는 죄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외적 상황이나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고통, 악은 우리 안에서 나오며 우리를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결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류의 한두 가지 죄를 계속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죄는 고백한 후 더 이상 행해지지 않아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죄들은 예전에 자주 고해했던 죄이지만 이제는 반복되지 않고, 어떤 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나이와 조건 상황이 바뀌어도 내면 깊이 항상 남아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만의” 또는 “원죄”라고 부르며, 그것은 나의 내면을 바라보면 떠오르는 죄입니다. 각자의 내면의 “원죄”는 항상 “네가 사실은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라고 말하면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우리를 괴롭힙니다. 많은 죄들 가운데는 그렇게 아픔을 느끼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의” 죄는 마치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가 그것에 묶여 있는 것처럼 우리를 실망케 합니다. 그 죄를 저지르게 되면, “안 하면 좋을 때”와 반대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죄는 나를 이해하며 날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죄는 우리에게 많은 인내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인내를 묵상하라는 초대입니다.

자신의 죄에 정확한 이름을 붙일 줄 아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시입니다. 누군가 장미꽃의 물처럼 신앙 생활을 한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단순한 약점 때문에 고통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해 말할 때, 성덕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하느님 말씀의 빛을 따라 가면서, 죄책감에 짓눌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적 사고로 죄로부터 오는 고통을 수용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포기하고 은총에 나를 맡기는 순간, 더 이상 자신만을 사랑하지 않기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은 고통합니다.

우리는 단순한 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으로 변할 수 있음)는 아마도 평생 동안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과 정면으로 맞서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놀랍기도 하고, 말도 안된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것이 사실임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신을 바로잡기 위해 수없이 이를 시도했고, 수없이 아주 쉽게 이 죄로 다시 빠져 좌절했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죄를 하느님 자비와 능력을 높이는 나의 “약함”으로 바꾸는 것(2코린 12,9 참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1) 무엇보다 자신의 죄를 단순하고 부끄러움 없이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죄와 평화 (평화가 아님)**를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저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라고 기도함으로써 자신을 훈련시키십시오.

2) 나중에 죄 뒤에 숨은 환상을 밝히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찾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3) 죄로 인해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말씀하십시오.

4) 마귀는 자신이 악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의 진짜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고 그분의 면전에서 멀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악마는 성전 문 앞에 멈춰 서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도 당신은 주님 앞에 갈 용기가 있지?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합니다.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은 결코 하느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일지 모르지만 결코 부끄러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 보스코의 착한 자녀로서 자주 신뢰를 가지고 화해의 성사에 다가가 겸손하게 하느님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누리는 일에 지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 기도와 묵상을 위해서

1) 하느님의 자비를 받아들이는 네 가지 “조건”(신뢰, 겸손, 감사, 용서) 중 어느 것이 부족하다고 느낍니까? 왜 그렇게 느낍니까?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2) 내가 자주 고백하는 “차별화”된 죄가 있습니까? 내가 그 죄를 자주 저지르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죄는 나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 나 또한 비유에 나오는 작은 아들처럼 느낍니까? 아니면 받아들 같다고 느낍니까?

이 달의 약속

나는 오늘 하루 나에게 있었던 일 중에서, 3가지 것에 대해 감사하겠습니다.



신뢰, 겸손, 감사, 용서.

믿고, 말기고, 미소짓자

ANGEL FERNANDEZ ARTIME 신부님의 편지

ADMA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신심회는 “**성화와 살레시오 사도직의 여정**”입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돈 보스코는 성덕의 목표를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으로 제안하고 젊은이들에게 되풀이하여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때로는 역행을 요구하는 여정이지만 어려움 때문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영생의 문을 활짝 열어 주기 때문입니다.

총장은 가정생활에서 성화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선을 찾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대화에 시간을 할애하고, 불평하지 말며, 애정과 존중으로 이해하면서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성화의 길임을 기억시켜 줍니다.

“어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자렛의 성가정처럼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느님과 그분의 섭리 안에서 신앙을 살아가는 가정은 교회와 사회에 큰 재산입니다.”

봉헌생활자들은, 모든 사람이 성덕의 길에 견도록, 학업, 우정, 봉사로 구성된 일상 생활을 통해 젊음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격려하고 증거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살레시오 가족은 29세 미만의 성인, 복자, 가경자, 하느님의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처럼 “옆집” 성인으로 이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삶의 길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ADMA는 모든 사람에게 살레시오 영성의 두 가지 큰 기둥인 성찬례와 도움이신 마리아를 제안하고,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중재해 달라고 성인들의 전구를 청합니다. 특히

신심회 회원들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고통받고, 보속하기**” 위해 자신을 주님께 바친 포르투갈의 신비주의자 복녀 알렉산드리나 마리아



다 코스타와 Pozoblanco(스페인) ADMA 신심회 설립에 기여했으며,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1936년에 순교한 복녀 Teresa Cejudo Redondo, Nizza Monferrato(이탈리아)의 하느님의 종 Rosetta Franzi Gheddo와 La Palma del Condado (Spagna)의 Carmen Nebot Soldan.

살레시오 가족의 새로운 성인들 가운데 최근에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시성된 간호사이자 살레시오 수사인 아르테미데 자티를 기억합니다. 이 모델들은 ADMA 신심회원들과 살레시오 가족 및 온 교회 구성원의 성화를 위한 촉진제입니다.

안드레아와 마리아 아델레 다미아니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아드마 입회 지원자 양성

토리노 발도코의 아드마 프리마리아가 제안하는 양성과정의 규정 4조는, 회원의 개인적 의무에 대해 말합니다.

신심회에 가입하는 모든 사람은 살레시오 영성에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와 신자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갈 것을, 회원들 앞에서 서약합니다. 이 선택은 가정과 일터, 교회, 사회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것은 삶과 사도직을 일치시키는 형태로서, 이를 위해 각자의 첫 번째 약속은 전례 생활, 기도와 성사생활에 개인적으로 잘 참여하여 항상 은총을 동반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례는 말씀과 빵 안에서 부활하신 분을 실제로 만나는 특별한 순간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는 아버지의 자비로운 포용을 경험하기 위해



중요한 화해의 성사에 자주 참여해야 합니다.

전례 생활에 참여하겠다는 의지와 직접 연결된 것은 돈 보스코의 정신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의 탁월한 모델이시며 그분의 은총의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살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성모님께 대한 신심의 대중적 차원을 실천하고 전파하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신심회와의 친교의 정신을 간직하고, 우리의 기도에 자신을 맡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은총을 청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쇠신하고 강화하면서 살기 위해 각 회원은, 매월



24일 기념, 묵주기도, 도움이신 마리아 축일을 준비 9일 기도, 도움이신 마리아 강복, 성모 성지순례, 성모 행렬, 교구 생활을 위한 협력 등을 실천한다..

대중 신심의 다양한 실천 가운데 하나인 묵주기도는 성요한 바오로 2세가 교황 교서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에서 가르쳤듯이 근본적이고 중요하다.

«성모 마리아의 묵주기도는 절제된 요소로 복음 메시지 전체의 깊이를 그 자체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의 아름다움을 관상하고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체험하기 위해 성모님의 학교에 몸을 맡깁니다. [...] **묵주기도는 우리를 인도합니다. 신비롭게도 나자렛 집에서 그리스도의 인간적인 성장을 동반하기로 응답한 마리아와 함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완전히 형성될 때까지 동일한 관심으로 우리를 교육하고 형성할 수 있게 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행동에 기초하고 근본적으로 그것에 속하는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되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해 줍니다. 그것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표현된 빛나는 원리이며, 제 삶에서 그토록 강렬하게 경험한 것이며, 저의 주교 좌우명인 **토투스(Totus)**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과정에서 마리아의 역할을 설명했던 성 루이지 마리아 그리농 드 몽폴의 교리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 모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각자가 마리아의 역할 안에서 그리스도께로 가다. 모든 신심보다 더 완전한 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완벽하게 일치시키고 결합시키며 봉헌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일치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신심 중에서 영혼을 우리 주님께 가장 많이 봉헌하고 일치시키는 것은 성모님이신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며, 영혼이 더 많이 봉헌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헌신될 것입니다.” 묵주기도에서처럼 그리스도의 길과 마리아의 길은 결코 그렇게 깊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ADMA의 일원인 회원들이 마리아를 본받아 그들의 가정에서 환대, 경청, 구체적인 도움 및 관대함의 그리스도교 환경을 조성하도록 봉사합니다. 돈 보스코가 예방교육을 발도코에서도 살아낸 것은 가족 정신 때문입니다.

**달콤함,
성실함,
감사함**



마리아를 본받음으로써 우리는 본당에서 사람들, 특히 젊은이와 가난한 이들의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어머니다운 관심에 동참하게 됩니다. 더욱이 사도적, 교육적 헌신은 교회와 살레시오 가족 안에서 평신도, 종교, 사목적 성소를 기도하고 지원하는 성소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회원은 성모님의 복음적 태도를 본받아 일상 생활의 영성을 실천할 것을 약속합니다.

- **법정화페 - 위탁:** 신의 뜻에 대한 온순함과 가용성;
- **Stabat - Confida :** 시련과 십자가의 시간에 충성과 인내;
- **Magnificat - 미소 :**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일들에 대한 감사.

“믿고 맡기고 미소 짓자” 라는 모토를 관찰합니다. 그것은 또한 ADMA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총장 Angel Fernandez Artime 신부의 서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일상 생활의 거룩함:

« 이 “**성화와 살레시오 사도직의 여정**”[...]은 따르기 쉬운 끝없는 행복을 지향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돈 보스코는 성덕은 특권층만을 위한 길이 아니라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한 부르심으로 제시했습니다. 주로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긍정적인 증언을 하는 가정 안에서 살아야 할 거룩함의 길입니다. [...] 거룩함에 대한 이 부르심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진지하게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공부, 일, 관계, 우정, 봉사, 여름 캠프, 노래...».

지안 루카가 마리안젤라에게 자주



가족의 연대기

시실리아의 아드마



3월 5일 일요일 ADMA 회원인 Arenella Palermo, Capaci, Alcamo, Marsala는 거룩한 부활절을 준비하는 영성의 날을 위해 Palermo의 San Gabriele Arcangelo 성당에서 만났습니다. 호스트 본당의 돈 안젤로 토마셀로 (Don Angelo Tomasello) 신부는 기도와 묵상, 성체조배 참여를 통해 하느님의 자비를 강조하였으며, 은혜로운 하루가 되었고, 진정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묵상을 잘 이끌어주신 신부님의 말씀에 모든 회원들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산 베니그노 카나베세



2월 25일 토요일, 산 베니그노 가나베세의 아드마와 아드마 프리마리아 적은 수의 대표단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 아드마 그룹은 성모님께 의탁의 기도 여정을 계속해 왔다.

옛 프루투아리아 수도원에서 경험을 나누는 교류의 시간, 묵주기도, 거룩한 미사를 바치고 나누는 오후를 보냈다. 미사는 Mario원장 신부와 ADMA의 영적 활성화자인 Don Alejandro Guevara신부가 공동 집전했다.

기사와 사진 보내기

여러분이 수행하는 양성 모임, 도움이신 마리아 24일 기념, 봉사활동의 기사와 사진 제목과/또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기사(.doc 형식, 최대 1200자 공간 계산하지 않음)와 최대 2장의 사진을(jpg디지털 형식 및 너비 1000px 이상의 크기)

adma@admadonbosco.org 로 보냅니다. 이메일 “가족 연대기”의 제목과 텍스트에 저자의 자료를 표시하는 것 (이름, 성, 촬영 장소, 소속 Adma, 도시, 국가)은 필수적입니다.

보냄으로써, ADMA는 항상 저자의 이름을 인용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사와 사진을 처리하고, 출판하고, 부분적으로라도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미지는 편집진의 재량에 따라, <https://www.admadonbosco.org> 사이트 및/또는 다른 ADMA 출판물에 제목과 저자의 이름과 함께 발행될 수 있습니다.